

### 발포스티로루 대체물질(代替物質)은 연소시에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으면서 흡으로 환원시키는 신소재 출현!

토목과 건축분야에서 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용도가 다양한 제품임으로 금후 그 응용도가 크게 기대됩니다. 「코-믹스 고무다 하구 사장」이 제품은 발포스티로루의 대체가 되는 발포체의 신소재「LC호무」(평성 10년9월호 개제)

규소화합물이 주성분으로서 연소시에 유독가스와 악취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 특징.

발포스티로루는 쿠션성이 있으나, 열에 약한 것이 결점 신소재의 제품은 규소화합물로 되어있으므로 내열성이 있습니다. 만일 화재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타는일이 없다. 토사(土砂)와 같은 성분임으로 폐기할적에는 그대로 흡수에 버려도 된다.

초목(草木)이 자라지 않는 산성토양을 알카리성토양으로 개선하여 줌으로 일정의 개선재로서도 사용할 수 없는 매리트가 있음.

여러가지 형상으로 가공이 되며 토목공사를 형추주택의 단열재 식목, 화분등의 이용등 건축조경자재에 응용이 전망됨 (Infrdia : 정보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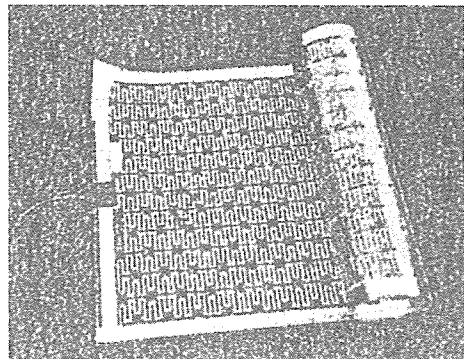
### 초박형(超薄型)의 면상발열체(面狀發熱體) 탄생!

두께가 0.165미리메타의 최신포재 초박(超薄)형의 면상발열체로서 취사장(부엌), 목욕탕,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의 옥상, 지브○등에 부착시키면 습기가 많은 장소의 루전문제(漏電問題)도 걱정이 없음.

특히, 겨울철의 보온을 필요로 하는 한냉지역 주택, 마루방, 화장실의 거울을 항상 보온시킬 수 있어 용도가 다양한 발열체이기도 함.

종래에도 카본 소재의 면상 발열체로 가공 된 것이 있으나, 접는 장소와 굽힌 장소에는 열화되는 단점이 있었으나, 신상품은 물건에도 감아서 보온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알미늄합금의 소재에 내열폴리에스텔 수지의 필름을 부착시킨것, 미려한 디자인의 스크린 인쇄와 에칭(食刻)기법을 병용한 신소재 상품임

(Infordia: 정보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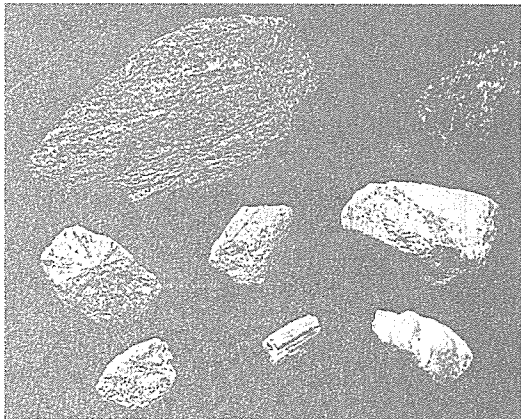
### 신소재와 새로운 산업의 제언 건강적인 주거생활을 만드는 부직포 기적의 터마린 광석의 응용도

터마린(TORMALINE)은 사람들의 생일기념(10월의 탄생)으로 선물의 보물인 광석으로, 매우 낮은 광석이기도 하다. 그의 빛깔은 풍부하면서 에메랄드 그린과 적색과 부루의 것이 보석장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그의 최대의 특징은 별명「전기석」으로 불리우는 것과 같이 결정의 양단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극이 자연으로 발생하여 0.06밀리 암페어의 미약전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소재로서도 적고 그의 기능과 특성을 살려서 상품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당사의 사업이기도 합니다.」라고 T취체역 사장 기무라슈 씨, T&TECH VO는 이때까지는 터-마린의 전기분해성과 수질조정작용등을 이용하여 정수기 등을 개발하여 왔다. 작년의 10월에 새롭게 터마린광석의 분말을 함침(合浸)시킨 부직포 "TM쉬트"를 개발하였다.

「터마린은 열과 마찰등의 압력을 가하면 원적외선을 발생하여 가기에는 인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방균(防菌), 방취(防臭), 방(곰팡이) 효과도 있다고 한다.



그의 특성과 기능을 살려낸 것이 바로 이 TM쉬트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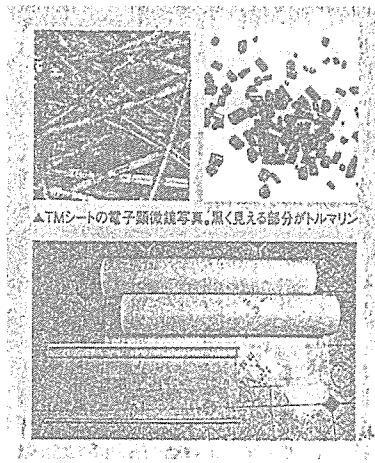
그 외에도 투습성(透濕性), 내수성(耐水性), 통기성(通氣性) 더욱이 파열강도(破裂強度)와 시공성(施工性)등의 특징도 갖고 있다.

TM쉬트-트는 벌써 건축자재로서 그의 통기성과 투습성으로부터 내외장용 하우스랩프로써 채용되고 있으나, 전혀 틀린 분야에서의 용도개발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TM쉬트-트를 사용한 로-루 카텐을 위시하여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수술용의 거제와 가까운 열차 비행기의 쉬트와 머리베게카비등에도 채용될수 없겠느냐고 문의를 하여 오고 있는 중입니다.

부직포 그 자체는 이미 일본국내에서는 포화상태로 되어지고 있으며, 저가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기능을 갖게 하는 것에 많은 주목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T7TECH사장은 말하고 있다.

(Infordia: 정보지에서)



신기술개발 소식 제공

(사)한국원적외선협회 전무이사 이희한

